

圖書館綜合化와 이에 따르는 몇가지 問題點

館長 李 萬 甲

1. 새로운 圖書館의 特徵과 그 規模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은 10 개年綜合計劃에 따라 冠岳山캠퍼스에 새로히 건립되며 이는 새 캠퍼스내의 모든 教育施設로부터 걸어서 5分內에 도달할 수 있는 中心的인 位置에 자리잡게 되며 또 가장 큰 建物이 될뿐만 아니라, 機能面으로 보아도 中樞的인 役割을 하기로 되어 있다. 圖書館의 크기는 약 8,350 坪이되며 6層建物로서 1,2層은 全的으로 奎章閣圖書館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3層부터 6層까지가 一般圖書館이 된다. 奎章閣圖書館은 勿論 附屬圖書館의 一部를 이루지만 機能은 獨立的으로 수행되도록 計劃되어 있다. 이 附屬圖書館에는 종전의 單科大學에 속해 있던 分館중에서 冠岳山으로 移動하지 않는 醫科大學과 農科大學의 分館을 제외하고는 모든 分館이 統合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各學科에는 讀書室이 마련될런지 모르지만 單科大學에 圖書館分館이나 分室은 두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閱覽席은 學部學生을 위해서 3,130 席을 마련하고 大學院學生을 위해서는 800 席, 教授를 위한 칸막이를 한 1 坪 4 合 정도의 特別個室을 70 개 두기로 예정하고 있다. 그 밖에 奎章閣圖書館에는 50 席의 特別席을 두며 別途로 參考 및 雜誌閱覽室에도 約 100 名 정도가 利用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될 것이고 喫煙라운지에도 約 80 名이 앉아서 自由롭게 공부하고 토론할 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이리하여 전체 閱覽席은 約 4,200 席이 될 것이며 學生만을 위한 閱覽席數도 4,000 席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餘裕가 있는 數이다. 現在 서울大學校의 學生總數는 約 14,000 名인데 各分館을 包含한 全體 閱覽席數는 3,065 席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圖書館은 설사 學生數가 2 萬名이 되더라도 農大와 醫大는 除外되므로 이만한 數면 충분한 스페이스

를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사실 建物の 크기로 보면 새 附屬圖書館 建物は 約 1萬5千名 정도를 가지고 있는 美國의 웬만한 州立大學의 主要圖書館보다 多少 큰 편이며 어느 정도 國際的 水準의 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書庫는 教授와 大學院學生에게만 開架式으로 되어 있고, 學部學生은 出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一般閱覽室에 限한 것이고 奎章閣圖書館에서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責任係員 以外の 어떤 사람도 書庫에 出入할 수 없을 것이다. 美國에서는 大體로 一般圖書는 開架式을 채택하여 學部學生도 자유롭게 書庫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美國에서는 學生의 紀律이 다소 문란해져서 책을 읽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開架式에 懷疑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따라서 冊이 귀하고 한번 산 冊을 잃었다고 해서 다시 사기도 어려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學部學生에 까지 開架式으로 하기는 곤란한 일이며 솔직히 말해서 大學院學生에 대해서 自由로운 書庫出入을 용납한다는 데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973年 現在 서울大學校가 소장하고 있는 藏書數는 全體 約 93萬卷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4萬卷은 奎章閣에 들어있는 冊이고 8萬餘卷은 農大와 醫大 및 病院이 보유하고 있는 藏書이다. 따라서 새 圖書館에는 84餘萬卷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14萬卷은 奎章閣圖書館에 소장될 것이고 一般圖書館에는 70萬卷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圖書館이 移動한 뒤에는 一般圖書館에서 每年 約 2萬4千卷씩을 收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1986年이 되면 一般圖書館의 藏書數는 100萬卷이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書庫 스페이스는 실제로 더 많은 冊을 소장할 能力을 갖고 있으며, 奎章閣圖書館만 20萬卷을 보유할 수 있고 一般圖書館의 書庫도 120萬卷 정도는 충분히 소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후에 가서 圖書館이 비좁아 지더라도 옆에 增築할 수 있는 餘地를 남기고 있다.

2. 圖書 및 資料購入費의 不足

새로운 圖書館의 建물이 完成되면 外觀上으로 꽤 크고 아름다운 圖書館으

로 보일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 보더라도 照明과 冷暖房裝置를 비롯하여 各種 現代的인 施設과 裝備를 갖추기로 되어 있어서 國際的인 水準에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大學圖書館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機能的인 面에서 새 圖書館이 좋은 圖書館이 되는데는 적지 않은 重要的 問題點들이 있다. 그 첫째의 問題點은 새 圖書館이 利用者가 必要로 하는 情報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冊과 其他의 資料를 갖추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解放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大學校에서는 一般圖書과 雜誌를 많이 구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圖書館은 必要的 情報를 얻는 場所라기 보다는 學生들이 工夫를 할 자리를 제공하는 구실 밖에 하지 못하였다. 근자에 와서 圖書購入豫算은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도 1973年度 國庫豫算에서의 圖書購入費는 불과 3千6百餘萬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美貨로 따져서 약 9萬弗에 불과한 豫算이다. 美國의 예일大學校의 一年間 圖書購入費는 170萬弗이라고 한다. 예일大學校는 하바드大學校 다음으로 美國 大學校들중에서 圖書를 많이 가지고 있는 大學校이므로 例外로 치더라도 筆者가 訪問한, 學生數 1萬5千 乃至 2萬名인 보통의 州立綜合大學에서는 60萬弗 乃至 100萬弗 정도의 책을 每年 구입하고 있었다.

서울大學校는 國庫 以外에 學生圖書費로 年에 約 2千3百萬원 정도의 圖書를 구입할 수 있는 別途의 豫算을 갖고 있다. 이것을 國庫와 합친다고 해도 約 6千萬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美貨로 約 15萬弗로서 美國의 二流 州立大學校의 圖書購入豫算의 4分の 1 乃至 6分の 1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日本 東京大學의 1971年度の 圖書 및 資料費豫算은 4億5千萬圓으로서 美國의 二流 州立綜合大學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이에 비하면 서울大學校의 圖書購入費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圖書數는 보잘 것이 없다. 보고자 찾는 冊이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教授나 學生은 책을 빌리기 위해서 圖書館에 가볼 생각을 갖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서울大學校가 美國의 二流 州立綜合大學의 구실을 하는 程度의 大學이 되려고 해도 最少限 30億원의 圖書購入費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서울大學校는 美國의 보통 州立綜合大學과 같은 性格을 가진 大學은 아니다. 그것은

國家의 中樞的인 教育, 研究機關이며 따라서 國家의 發展에 관련되는 研究에 필요한 원만한 情報은 쉽게 公 供 할 수 있는 곳 이 어 야 한 다. 또 한 서 울 大 學 校 는 과 거 30年 동 안 에 世 界 에 서 出 版 또 는 發 表 된 重 要 한 冊 과 資 料 를 거 의 갖 고 있 지 않 으 므 로 그 중 에 서 요 기 한 것 은 段 階 的 으 로 購 入 해 야 할 것 이 다. 가 령 重 要 한 外 國 學 術 雜 誌 의 백 넘 버 같 은 것 은 모 두 갖 추 어 야 한 다. 이 런 點 을 고 려 할 때 서 울 大 學 校 의 圖 書 購 入 費 는 적 어 도 年 間 約 5億 원 은 策 定 되 어 야 하 지 않 을 까 생 각 되 는 것 이 다.

이 것 은 결 코 많 은 돈 은 아 니 다. 정 말 知 識 이 힘 이 라 면, 또 한 많 은 發 展 理 論 家 들 이 지 적 하 는 바 와 같 이 國 家 發 展 에 서 教 育 이 차 지 하 는 比 重 이 그 처 럼 크 다 고 한 다 면, 그 리 고 우 리 는 남 이 창 조 한 지 식 을 빌 려 서 써 먹 는 追 從 的 이 고 模 倣 的 인 國 家 로 만 있 을 것 이 아 니 라, 主 體 的 인 國 家 로 서 우 리 의 運 命 을 우 리 스 스 로 의 힘 으 로 개 척 하 려 는 강 한 意 志 로 知 識 을 창 조 함 으 로 써 우 리 의 安 保 와 發 展 을 기 할 수 있 다 면 5億 원 의 投 資 는 결 코 過 大 한 것 이 라 고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3. 司 書 職 의 資 質

그 러 나 圖 書 購 入 費 가 있 다 고 해 서 곧 좋 은 圖 書 館 이 되 는 것 은 아 니 다. 돈 이 있 어 도 冊 이 구 입 되 어 利 用 者 에 게 제 공 되 기 까 지 는 여 러 過 程 을 거 치 게 되 어 있 다. 우 선 冊 을 산 다 고 할 때 어 먼 冊 을 사 야 하 는 가 하 는 것 이 問 題 가 된 다. 收 書 를 함 에 있 어 서 는 우 리 大 學 이 어 먼 目 的 을 갖 고 어 먼 活 動 을 하 고 있 는 가 하 는 것 이 먼 저 고 려 되 어 야 할 것 이 다. 둘째 로 는 그 런 目 的 을 가 진 活 動 을 지 원 하 기 위 해 서 우 리 圖 書 館 은 어 먼 情 報 를 제 공 해 야 하 는 가 를 아 라 야 한 다. 그 러 기 위 해 서 는 世 界 의 知 的 인 活 動 이 어 먼 경 향 을 보 이 고 있 으 며 우 리 大 學 은 大 學 本 來 의 機 能 을 증 진 하 고 國 家 의 發 展 에 이 바 지 하 기 위 해 서 어 먼 情 報 를 제 공 해 야 하 는 가 하 는 데 관 한 깊 은 知 識 을 가 져 야 한 다.

셋 제 로 는 우 리 大 學 圖 書 館 의 藏 書 構 成 을 파 악 하 여 어 먼 情 報 가 缺 如 되 어 있 는 가 를 아 라 야 한 다. 그 러 나 그 것 을 적 절 히 해 나 갈 만 한 卓 越 한 識 見 과 많 은 經 驗 을 가 진 司 書 를 구 하 기 힘 든 것 이 우 리 의 現 實 이 며, 또 組 織 도 마

련되어 있지 않다. 冊의 선정은 다분히 氣分과 짐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體系的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다. 지난 1年동안에 우리는 外國學術雜誌의 購入을 最優先 順位로 다루었다. 그리고 世界에서 6萬餘種이 나오는 學術雜誌 중에서 불과 1,200種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우리의 豫算형편으로서는 적어도 어떤 論文이 나오고 있고 어떤 論文이 問題가 되는가를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各分野에 있어서의 Abstracts, Index 그리고 Annual Review 를 구입하는데 힘을 기우리고 있다. 둘째번으로 힘을 기우리고 있는 것은 參考書籍의 充實化이다. 현재 附屬圖書館이 가지고 있는 參考書籍은 約 5千卷이지만 可及的 短時日內에 2萬卷程度는 비치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세째번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基本的인 圖書의 確保이다. 여기서 基本的인 圖書라는 것은 學生들의 工夫와 教授의 研究를 위해서 原初的으로 갖추어야 할 教科書를 비롯하여 理論과 方法을 카바하는 書籍 그리고 分野를 대표하는 古典的書籍이나 珍요한 資料들이다. 네째번으로 깊은 關心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古圖書, 古文書와 資料의 確保이다. 더구나 잃어지기 쉬우면서 중요한 古文書를 구입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時急을 요하는 일이라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豫算이 부족하여 그가지는 힘이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方針이 옳은가 어떤가 하는데는 더 신중한 批判과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方針밑에 具體的으로 圖書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적지않은 缺點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問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年前에 우리 圖書館을 診斷하고 報告書를 제시한 하바드大學校 와이드너圖書館長인 루이스·E. 마틴氏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 圖書館에는 收書係以外에 藏書發展(Collection development)을 취급할 특별한 部署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部署에는 專門的 Bibliographer 들이 필요하며 各分野를 대표하는 教授와 藏書構成의 基本方針과 收書의 原則樹立에 있어서는 各分野를 대표하는 教授와 이 專門的 Bibliographer 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藏書構成의 方向을 잡기 위해서 附屬圖書館에서는 今年부터 3年間에 걸쳐 教授와 學生을 대상으로한 調查를 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알고져 하는 것은 圖

圖書館利用者が 어떤 研究 또는 工夫에 關心을 갖고 있으며 어떤 種類의 雜誌, 參考書籍, 教養書籍, 單行本으로 된 專門書籍을 원하는가, 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하는 것이다. 이 調査의 結果는 앞으로 圖書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珍요한 資料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收書 다음에 거쳐야 할 過程은 整理이다. 整理는 單純한 技術的인 作業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한 專門的인 知識이 요구된다. 우선 冊을 分類하려면 그 冊이 어떤 內容을 지닌 冊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는 고사하고 거기에 쓰여 있는 珍요한 文章을 解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英語로 되어 있는 것도 좀 특수한 專門的 書籍이면 알기 어렵게 된다. 日本書籍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日本語를 아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또한, 말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專門書籍의 內容을 이해하고 옳은 分類를 하기 위하여는 現在 司書職員의 能力은 여간 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專門教授에게 찾아가서 그 冊이 어떤 內容의 것인가를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數年間 圖書를 整理하는 동안에 整理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의 能力은 상당히 向上되었다. 듣는 바에 의하면 美國에서는 冊 한卷을 整理하는데 平均 45分을 잡는다고 한다. 우리 圖書館에서는 현재 約 70여分이면 한 卷을 整理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에는 整理員의 基本的 知識과 經驗이 不足하여 이보다 훨씬 많은 時間이 걸렸던 것이다.

圖書館의 移動과 綜合化를 앞두고 當面한 重要한 問題의 하나는 各分館의 圖書整理方式을 標準化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附屬圖書館의 整理要員들이 次的으로 分館의 圖書를 再整理하는 事業을 전개하여 왔으며 工大 및 醫大를 除外하고는 대체로 今年內에 끝낼 豫定으로 있지만 各分館에서는 人員不足과 能力不足으로 再整理된 것을 完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整理를 完結하려면 分類만이 아니고 라벨을 붙이고 각종 목록카드(예컨대 저자카드, 分類카드 등)을 作成하고 排列하는 등의 一連의 作業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

圖書館에 移動하여 分館의 圖書가 함께 吸收될 경우 整理의 末備로 貸出業務가 圓滑히 되지 못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整理가 끝나면 圖書는 書庫에 들어가고 貸出되어 利用者에 의해서 閱覽될 것이다. 閱覽課의 業務는 圖書館의 一線에서 利用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利用者は 閱覽課의 서비스의 程度를 보고 圖書館 全體를 評價하기 쉽다. 그런데 새 圖書館으로 移動해 갔을 때 閱覽課가 맡은 바 業務를 적절히 수행할 能力은 극히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閱覽課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우리 圖書館의 圖書가 어떠한 整理方式에 의해서 整理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利用者が 카아드를 잘 찾지 못하여 원하는 冊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問議하였을 경우, 職員 자신이 카아드를 찾는데 무척 시간을 잡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어떤 職員은 카아드를 찾아내지 못하고 經驗에 의해서 짐작으로 書庫안을 이리 저리 뒤져서 찾는 일도 왕왕 있다. 그것도 우리말로 된 冊이나 可能하지 外國語로 되어있는 冊이면 困難해 진다. 그리하여 冊을 하나 찾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利用者は 적지 않은 불평을 가끔 털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點을 多少나마 是正하려고 로오마字表記法訓練 其他 司書實務訓練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實力은 滿足스럽지 못하다.

司書職員의 水準이 이 程度이므로 利用者が 自己의 學習 또는 研究에 어떤 冊이 有用한가 그 冊이 本圖書館에 없을 경우에는 어떤 圖書館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데 관해서 利用者에게 도움이 되는 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利用者에 대한 親切心도 滿足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여 대수롭지 않은 일에 言動을 잘못 취함으로써 利用者의 氣分을 상하게 하는 일도 더러 발생하게 된다.

以上은 一般圖書에 관한 얘기이지만 圖書館에서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는 參考業務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職員인데도 불구하고 參考室에 어떤 圖書가 비치되어야 할 것인지 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圖書의 內容을 잘 모르니까 利用者が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무슨 參考書籍을 볼 수

있는가를 물으면 엉뚱한 冊을 꺼내주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圖書館業務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書誌調查業務를 들 수 있다. 이 業務를 위해서 우리 圖書館에도 調查課를 두고 있지만 人員과 豫算의 不足으로 충분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圖書館報의 發刊과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資料의 索引, 예컨대 法律索引等 그리고 其他의 몇 가지 調查를 하고 있을 뿐이다. 전에는 外國學術雜誌의 記事索引을 발간했지만 豫算不足과 그 索引의 利用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刊行物로 發刊되는 記事 Index 및 Abstract 를 구입함으로써 이 사업을 發展的인 뜻에서 中止키로 하였다.

앞서 말한 圖書館의 藏書構成에 관한 調查도 사실은 여기서 해야 마땅하지만 힘이 不足하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書誌調查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圖書館利用者에게 적절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圖書館의 發展計劃을 세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阻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 말한 것 以外에 圖書館에는 다른 몇가지 중요한 業務가 있다. 가령 外國과의 資料交換, 製本 및 表具, 그리고 書籍이나 資料를 複寫해주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資料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한다든가 或은 利用者의 요구에 의해서 供給해 주는 일이다. 特히 奎章閣圖書는 희귀본이라던가 國內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많아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대체로 豫算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4. 司書職員의 待遇

圖書館이 훌륭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要件은 결국 司書職員의 資質이 向上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勿論 圖書館職員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努力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다. 夏冬期休暇時에는 司書職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司書實務에 관한 自體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로오마字表記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教育받은 內容에 관해서도 試驗을 치루고 있으며 試驗成

續은 반드시 昇進에 反映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潛在的 能力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國內의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專攻하도록 獎學金條로 學費를 補助해 주고 있으며 또 그것을 擴大하도록 計劃이 서고 있다. 그뿐 아니라 將次 幹部로 活躍할 만한 職員에 대하여는 外國에서 工夫할 機會를 마련해 주고 있고 또 外國의 圖書館을 視察, 研究하도록 助成해 주고 있다.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司書職員들의 資質은 急速히 向上되지 않는 다. 좀 訓練을 加하여 實力이 向上되거나 本來 有能한 職員은 보다 待遇가 좋은 職場을 찾아서 나가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昨年부터는 약간 司書職員에 대한 待遇가 改善되어서 그만두는 사람의 數가 다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다른 職種에 있는 사람에 比하면 서울大學校의 司書職員의 離職率은 極 높은 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의 圖書館에는 女子職員이 많은데 그들은 男子職員보다 勤續年限이 짧으며 職員의 離職率이 더욱 높아지는 面도 없지 않다.

우수한 司書職員을 確保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待遇를 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다. 待遇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勿論 상당한 俸給과 手當을 지급하는 일이다. 그러나 司書職員의 級數가 낮고 物質的인 待遇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좀처럼 오지 않으려고 한다. 待遇問題에 있어서 또하나 고려해야 할 點은 昇級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現在 우리 圖書館의 司書職의 最上職級이 4級甲類 司書로 끝나고 그 以上 올라 갈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圖書館職員은 司書特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司書職에 있는 사람이 水平的으로나 垂直的으로 移動할 機會가 적고, 취급하는 일이 變化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研究心이 강하거나 學問的인 일에 關心이 깊은 特殊한 사람이 아니면 지루한 느낌을 갖기 쉽다. 그럴수록 처음부터 級數를 높이 해주고 昇級을 할 기회도 늘리거나 或은 物質的 待遇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一般 行政職公務員과 同等하게 해주고 있으며, 司書手當을 준다고 해도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의 額數가 되지 못하므로 司書職에 대하여 魅力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심각한 問題는 上位幹部에 대한 待遇다. 한 部署의 責任을 져야 할

司書幹部는 決코 技術者가 아니며 教授와 맞먹을 정도의 教養과 學問的인 識見을 가질 뿐만아니라 오늘과 未來의 社會에서 知識과 情報가 어떤 구실을 하게 될 것이며, 또 해야 하는가 하는데 관하여 哲學的 見解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學問的研究의 重要性을 옳게 인식하여 利用者에 대해서 적절한 情報를 제공하고 좋은 案内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外國에서는 專門的 司書職員에 대해서는 教授職에 相應하는 타이틀을 주고 또 그만큼 待遇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大學校에서도 그런 制度를 택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教務의 責任的位置에 있는 분들과 協議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具體化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 制度는 약간의 難點이 있다고 해도 꼭 실현시켜야 한다고 筆者는 굳게 믿고 있다.

5. 其他의 問關

그밖에도 좋은 圖書館이 되는데에는 앞에 적은 것처럼 중대하지는 않을런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약간의 問題들이 더 남아 있는 것이다.

1) 分館綜合에 따른 問題 :

그 하나의 問題는 새로운 캠퍼스에 移動했을 때 자연 分館들이 本館에 統合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人員의 統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分館은 實質的으로는 各單科大學에 속해 있고 다분히 獨立性을 띠고 있었다. 그리하여 分館의 司書職員들과는 本館이 機能上 連絡과 協助를 해왔으며 教育訓練도 本館職員과 함께 받게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人事事項은 各分館에서 거의 全的으로 장악하여 왔다.

그러므로 分館職員을 吸收했을 경우 原則的으로 本館職員과 平等하고 公平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 能力의 評價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고 하여 分館職員이 다소 不公平하게 취급되는 듯한 印象을 주게 된다던가 혹은 일하는 樣式이 달라서 本館職員과 分館職員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적어도 數年間은 적지않은 雜音과 마찰을 이르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한 雜音은 나아가서 圖書館綜合化라는 原則的인 問題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批判의 소리를 불러 이르기까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며 結果

的으로 圖書館의 綜合化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分館統
합에 따르는 人事問題의 處理에는 각별히 細心한 注意를 기우려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2) 圖書館 利用者の 協調 :

圖書館의 社會的 狀況에서 基本을 이루는 人間關係는 圖書館職員과 利用者
와의 關係이다. 이 關係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으면 圖館書이 옳은 機能을
수행할 수는 없다. 圖書館職員과 利用者の 關係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勿
論 우선적으로 圖書館職員의 資質이 높아서 要求하는 情報를 신속 정확히
또한 친절하게 제공하는 奉仕的 態度를 취하는 것이 要望된다. 그러나 同時
에 利用者가 圖書館의 狀況을 理解하고 諸規定을 준수하며 圖書館職員에 協
助하는 것이 必要하다. 利用者는 自己의 個人的인 便宜를 위해서 規定을 어
기거나 無理한 奉仕를 요구하기 쉽다. 期限內에 返納해야 할 冊을 돌려보내
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있고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喫煙을 하는 일도 있다.
심지어는 冊중의 필요한 部分을 찢어서 가진다거나 冊을 훔쳐내는 일도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教職員과 大學院學生에게 書庫出入의 自由가 주어지고 書庫안에서
마음대로 冊을 꺼내서 工夫를 할 수 있게 되면 利用者중에는 책장을 뜯어가
는 사람이 더 많아질런지 모르겠다고 걱정된다. 또한 書庫出入者에 대해서
退出할 때 철저히 所持品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理解心
이 부족하여 마치 自己가 罪人취급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여 심한 不快感을
느끼고 調査者에 協助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쉬울 것이다.

以上은 否定的인 側面이지만 利用者에게 協助가 요망되는 肯定的인 側面
이 하나 있다. 그것은 利用者들이 圖書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
상 주의깊게 관찰하여 도움이 되는 助言과 情報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우리 圖書館은 圖書와 資料들을 많이 사지 못하여 利用者の
要求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教授와 學生들은 大部分 圖書館에 의존하는
일이 적었고, 따라서 空間的으로 心理的으로 圖書館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
므로 어떤 圖書가 有用한가를 圖書館에게 自發的으로 알려주는 일이 극히

드물뿐더러 圖書를 살터이니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성심껏 좋은 圖書를 조사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態度는 圖書館이 滿足스러운 與件을 갖추기 전에는 크게 나아지지는 못할런지 모르지만 시급히 고쳐져야 할 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圖書館의 與件이 좋아지려면 圖書館側에서의 努力만으로 부족한 것이며 利用者가 善意的 助言과 批判을 하는 동시에 大學行政에 관련되는 要路에 수시로 좋은 建議를 해주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또하나의 重要的 點은, 利用者 특히 教授들이 圖書館綜合化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적극 그 方針을 지원해주시기를 요망하고 싶다는 것이다. 圖書館綜合化의 利點은 여간 크지 않다. 豫算을 절약하며 收書·整理의 標準化와 體系化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有益한 資料를 迅速·正確하게 提供할 수 있게 된다. 教授들은 圖書館까지 가야 한다는 사소한 不便 때문에 여러가지 理由를 表面的으로 내세우기 쉽다. 누구나 圖書를 될수록 自己의 周圍에 가깝게 두고 獨占해서 마음대로 보기를 원하는것이 人之常情이다. 勿論 圖書館은 利用者의 要求에 따라 그들이 가장 效果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편리를 도모해줘야 할 것이다. 그 學科에서만 소용되는 圖書라던가 或은 重複되는 圖書면 해당되는 學科 또는 教授에 長期貸出케 하는 것이 더 有利할 것이고 그 學期에 教材用으로 必要한 圖書는 이의 重複本을 指定圖書室에 비치하여 活用할 수 있는 指定圖書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밑에 各學科 圖書室을 別途로 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現在 經濟的 形便과 圖書를 取扱하는 方式이나 圖書管理의 態度로는 圖書館이 어느정도의 水準에 올라갈 때까지는 엄격하게 抑制되어야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절실히 생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어디까지나 筆者 自身の 個人的인 所見이며 圖書館側의 公式的인 具體的 確定的方案은 아니다.

이 所見은 圖書館의 關係者와 讀者諸賢의 高見에 의하여 修正 補完되어 좀 더 具體的이고 또 가장 理想的이면서 實踐可能한 圖書館綜合化方案이 이룩되어야 할 것임을 添言하는 바이다.